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가족학의 역할과 과제

The Role and Tasks of Family Science in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이 정 연

목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주거학과

Lee, Jung Yeon

Dept. of Consumer, Child & Housing, Mokpo National Univ.

Abstract

This paper was written to present the recent trend of juvenile delinquency within the context of family system and to provide the role and tasks of Family Science in the area of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Korea. Since Family Science provides knowledges and skills to help for both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by improving interactional functions, the role of Family Science was focusing more on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perspectives. The tasks of Family Science, especially, in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therapy, and family policy, were as follows:

- 1) to prevent recurrence of misbehavior by family life education.
- 2) to draw the cooperation with the judicial system.
- 3) to provide the advanced course for volunteers.
- 4) to perform crime prevention education for normal adolescents.
- 5) to join the official education for civil service personnel.
- 6) to manage group-hom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bation period.

Key words : probation and parole system,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therapy, family policy

I. 시작하는 말

청소년기는 사춘기부터 성인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이 시기에 있는 자로서 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제반 특성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자,

즉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한상철, 1996).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발달과 함께 성호르몬의 발달 및 이차 성징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감이 증대되기도 하며, '나란 누구인가', '나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등의 내적인 성찰을 하게 되고,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와 독립하려는 욕구가 함께 존재하면서도 실제적인 독립능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정체감 혼미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는

Corresponding author : Lee, Jung Yeon

Tel : (02)447-5784, 016-359-2558

E-mail : ljj5784@yahoo.co.kr

외부사회의 시선에 과민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해나가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이기도 하나, 개인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하고 극심한 방황과 혼란을 경험하며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양상 또한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흉폭화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뿐 아니라 비행소년의 재비행 비율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 공갈 등 폭력범이 37.6%, 재산범이 24.3%,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이 3.4%, 교통사범이 27.1%로 나타나고 있고, 연령별로는 14세 미만이 1.1%, 14-15세가 19.9%인 반면, 16-17세가 33.7%, 18-19세가 43.2%로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남자범죄자가 87.0%로 월등히 많으나, 여자범죄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문화관광부, 2000). 청소년 범죄의 동기는 시대적으로 변화를 보여 1980년대 이전에는 빈곤으로 인한 재산 관련비행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으나, 근간에는 향락추구를 위한 유희비 마련인 경우가 많아 같은 재산관련 비행이라고 해도 동기 면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즉, 청소년 범죄에 있어 폭력범의 비율이 높으며, 동기에 있어서도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연히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범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1999년도에는 35.4%에 이르고 있다(문화관광부, 2000).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적응, 알코올중독, 실직 등 정신 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김인호, 1992)도 있는데, 청소년들의 비행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전문적인 개입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의 국내외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비행을 막는 개입전략에 있어서 상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시설수용 위주에서 지역사회 활동위주로, 의학적, 심리학적 모델에서 사회학적 모델로, 그리고 비행성적 사회관계의 강조 등으로 추세가 변화해가고 있으며(청소년대화의 광장, 1998a), 비행의 원인을 '개인적 뿌리'에서 찾는 의학적, 심리학

적 모델이 많은 비판을 받고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시되면서, 비행이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관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한 심리적 동요를 경험하는 것 외에도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상태에 있어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문제도 비행청소년 특유의 내재적인 성격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개인과 환경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부정적으로 굳어진 경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행청소년의 성격교정이나 행동수정에만 초점을 둔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며, 가족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겠다(이정연, 2000).

본 고에서는 비행청소년을 지도·감독하는 대표적인 행정기관인 법무부 및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학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분야인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을 중심으로 가족학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비행청소년과 가족기능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한 환경적 요소는 크게 가족체계, 교우집단체계, 그리고 학교체계로 볼 수 있다. 이중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체계는 가족체계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성장하고 지속적인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가족체계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히 영향력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는 건전한 가치관과 가정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으로 알콜중독, 미혼모, 가정폭력 등이 세대간에 전달되는 일차적인

학습의 장소이다(유영주 외, 2000). 문제가족을 대상으로 상담하게 되면, 개개인의 성격이나 기질과 상관없이 가족전체로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카운슬러들이 흔히 지적하는 역기능적인 가족의 특성으로는 가족을 운영해가는 규칙이 융통성이 없으며, 서로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이고, 개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이나 가족으로서의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의사소통이 우회적이고 이중적이어서 그 결과 갈등이 누적되면서도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일방적인 명령, 순종, 도피, 무관심의 행동양식이 습관적으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김유숙, 1998).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자아성장의 의욕을 지니지 못 하고, 가정 밖으로 배회하며, 사회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맞이할 즈음 그들의 부모 또한 제2의 사춘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은 느끼지 못했으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사회적으로 더 이상의 발전이 힘들다고 느끼거나, 배우자와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정체감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족은 부부 자신의 문제와 신체적, 심리적 격동기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가 맞물려 매우 복잡하고도 역동적이며(김은미·김명자, 1996), 이 시기가 스트레스와 위기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단계라는 보고(Rollins & Feldman, 1970; Rollins & Galligan, 1978; 박정희·유영주, 2000, 재인용)도 있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결과(서동인·정현숙, 1994)에 의하면 다른 가족생활주기에 비해 중·고등학교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atterson과 DeBaryshe 그리고 Ramesey에 따르면(김진희, 2000, 재인용), 비행청소년은 적대적이고 방임적이며 학대를 하는 부모의 양육조건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즉,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인 양육에 의해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성숙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결국 심각한 비행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가족은 그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반가정에 비해 상당히 강압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구성원들

이 서로 강제적이고 불쾌한 방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알콜남용과 다른 문제행동을 부모와의 관계에 관련지어 연구한 Bernes(1984)는 부모의 사회화, 특히 지지와 돌봄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녀의 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결여나 따뜻함과 친밀감의 결여 그리고 일관성없는 부모의 훈육태도 등과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특정한 양육형태나 관계의 질(質)이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강하게 연관되어있고 부모의 높은 지지와 돌봄이 있을 때 문제행동이 적다고 보고하였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8b).

Rutter(1985)는 비행청소년 가족의 경우 가족구성원간의 불화 및 갈등과 부모-자녀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결여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았다. 이처럼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다양한 문제와 갈등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그 자체가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지만, 가족이 본래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해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발생, 강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갈등 및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비행청소년에게 있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지속적인 위협요소로 지적된다(김진희, 2000, 재인용).

국내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 학생의 비행정도를 가정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의 월수입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가정이나 부모의 생존여부는 비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의 기능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통제, 부모의 정서적 친밀도, 부모의 방임적 태도, 부모의 과잉보호, 가정의 분위기 등이 대체로 비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한 변인은 부모의 통제변인으로 부모의 통제정도가 낮은 자녀의 가정일 수록 학교 및 성별을 불문하고 대부분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는 비행과 중요한 관련성을 지녀 특히 신체적 학대경험이 폭력적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훈육태도를 자세히 살펴 보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가 '무관심형'일 때,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별만 주는 형'일 때, 비행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청소년 비행은 가족의 구조보다는 가족의 기능적 측면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비행청소년 가족의 경우 가족구성원간의 불화 및 갈등과 부모-자녀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결여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불화는 부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자녀에게도 자녀학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긴장된 가정분위기를 형성하여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비행과 사회범죄를 유발하기 쉬운 것이다(이정연, 2000).

2.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청소년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에 따라 그 제도가 약간씩 상이하나,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들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문화관광부, 1999). 비행청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과 불량행위소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의 이탈, 또는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불량행위소년은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음주, 흡연, 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오영재 외, 2001).

현재 우리 나라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실시하고 있는 개입기관, 시설 또는 제도로서는 경찰, 소년일시보호소(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선도기관은 보호관찰소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비행소년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형벌이 가해지지 않은 채 일정기간 보호관찰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여 그들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 없는 처벌'의 형태로 정의된다. 청소년에 대한 형벌로서 소년원 수감은 기관의 바람직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비행청소년들과의 생활을 통해 반사회적 가치와 행동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또한 사회화와 성장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일정기간을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복귀한 경우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에서 낙오되어 장래의 바람직한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년범의 경우 보호관찰이라는 선진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 형사정책에 있어 하나의 진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장하는 주된 사무는 보호관찰 실시 및 사회봉사 명령·수감명령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선도실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그리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등이 있다(www.probation.go.kr).

그러나 이처럼 명백한 의의를 가지고 출발한 보호관찰제도가 실제 적용에 있어 그 본래의 취지에 명확히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다.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그 역사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아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예산의 투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이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89년 제도도입 이후 업무량이 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비해 인력은 80% 증가에 그치고 있어 업무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해룡, 2000).

현재 보호관찰 참여자에게는 월 1회의 정기 출석의무와 그 외 참여자별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감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조차 담당인력의 과중한 행정 업무와 비전문성으로 인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사전교육, 보호관찰개시 및 종료교육과 월

1회 실시되는 지도·감독, 유해화학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한 수강프로그램 정도이기 때문에 비행소년의 교정을 그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 적응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 내보내 주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에 재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보호관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비행청소년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보호관찰제도가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목적에 부응하여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막는 교육적인 노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보호관찰에 있어서 행정적인 집행과 인성교육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일견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에 대하여 형집행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최근 들어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 강력한 제재조치(보호처분변경, 구인·유치를 통한 집행유예 취소 등)를 도입함으로써 보호관찰 정책이 보다 강경한 노선을 지향함에 따라, 교정을 위한 인성교육보다는 통제기능을 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북돋워주는 지지가 필요하며 법적인 통제와 교육적인 지원간에 균형이 필요하다. 즉,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성장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수용하고 존중해줌으로써 정상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의 강경한 집행과 인성교육분야의 수용적인 방침은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비행청소년의 교화에 있으므로 상호협력을 통하여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운영체계가 요구된다.

3. 보호관찰 집행 현황

1998년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집행분야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집행에 대한 구분은 자체집행과 협력집행으로 구분되는데, 자체집행은 보호관찰소의 담당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협력집행은 담당직원이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하되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부분은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인 경우 전체의 10.2%를 자체 집행하였으며, 89.8%는 협력기관의 도움을 받아 협력집행을 하였다. 그 중 공익

<표 1>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분야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년도		1998		
사회봉사	계	37,506	(100.0)	
	자체집행	3,834	(10.2)	
	협력집행	소계	33,672	(89.8)
		행정	5,895	(15.7)
		공익	15,552	(41.5)
		의료	2,689	(7.2)
		복지	7,959	(21.2)
기타	1,577	(4.2)		
수강명령	계	2,995	(100.0)	
	자체집행	645	(21.5)	
	협력집행	소계	2,350	(78.5)
		약물	761	(25.4)
		준법운전	1,537	(52.6)
		심리치료	38	(1.3)
		가정폭력	-	(0.0)
성폭력	13	(0.4)		
기타	1	(0.0)		

분야에서 41.5%로 가장 많은 집행을 했으며 다음으로 복지분야(21.2%), 행정(15.7%), 의료(7.2%) 순으로 집행을 하였다. 또한 수강명령에 있어서는 전체 대상자 중 자체집행이 21.5%를 차지하였고 협력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78.5%로 나타났다. 그 중 준법 운전프로그램이 52.6%로 과반수가 넘으며 다음으로 약물프로그램이 25.4%(761명), 그 외에 심리치료가 1.3%(38명), 성폭력방지 프로그램이 0.4%(13명)로 나타났다.¹⁾

그리고, 자체집행보다는 협력집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지역사회의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없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외에도 수강교육을 제공할 관련단체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대상자들이 수강교육을 즉시 받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게되고 취업을 하지 못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형편이다. 따라서 수강교육을 담당할 인적자원 및 조적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정연·이창숙, 2000).

Ⅲ. 보호관찰과 관련된 가족학의 역할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수강명령 대상자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관련학문으로는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등 다양하다.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검사(인성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나 진로교육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에서는 전반적인 복지시설 실습장소로서 보호관찰소와 연결되어 있는 데 비하여, 가족학에서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체계 내에서의 개인이라는 인식을 기본전제로 하여 보호관찰대상자와 가족을 함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즉, 비행청소년

의 성격이나 인성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기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체계들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누적되어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보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가족학의 영역 중 보호관찰과 관련있는 분야로는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을 들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분야, 교육 및 상담분야 등이 있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가족정책분야를 들 수 있다.

각 부분별로 자세히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개발분야

최근 들어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비행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정보습득차원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행동수정에 목표를 둔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룬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응용하여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태도 및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김경미, 1988; 김순옥, 1992; 김인호, 1992; 노안녕, 1983; 박국향, 1991; 이미향, 1993; 이선화, 1992; 임태숙, 1991; 최창영, 1989),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가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단지 행동수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지적인 측면의 변화와 성장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종합적인 변화를 유도하게 되며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고 본다.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개인의 잘못이기 이전에 가족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가족학의 관점이며 따라서, 가족기능의 회복 및 가족체계의 강화를 주된 목표로 하는 건강가족적 관점(Healthy Family Perspectives) 하에서 인지-태도-행동의 세 측면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집행기관은 통상적으로 범죄의 유형이나 정도, 재범여부 등을 고려하여 담당직원이 분류하게 되는 데,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 사범 중 초범이고 약물남용 정도가 경증인 경우는 상담기관에 보내지고, 그보다 심한 경우는 신경정신과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2. 교육 및 상담분야

가족학의 실천분야인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은 비행청소년과 가족,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은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가족상담은 치료적 차원에서 가족학의 이론과 실체가 연결된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상담과 교육은 영역이 엄밀히 구분된 별개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교육 집단의 특성에 따라 피드백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고 실행되기도 한다.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면서도 비행재발 예방차원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병행되거나, 수강교육을 하면서도 그 중 정서적 장애가 심한 대상자 가족에게는 별도로 가족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국가족관계학회는 1997년부터 가족학 관련 전공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족생활교육사(2급, 1급, 전문지도자)와 가족상담사(2급, 1급,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공무원(특히, 생활지도사), 상담교사, 가정사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과정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족상담은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나라에 소개된 이래, 다양한 이론과 기법이 보급되고, 한국문화에의 적용가능성이 꾸준히 검토되어 왔다. 즉, 정신역동적 치료, 구조적 치료, 새티어의 성장모델, 경험적 치료, 행동주의 치료, 전략적 치료, 문제해결중심 치료 등이 매년 학회와 지부를 통해 강좌가 개설되고 대학의 교과과정에도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다양한 모델을 절충하거나 통합하여 가족상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시·군·구의 청소년종합상담실, 지역사회 가족상담센터 등에서도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가 인증하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가족정책분야

현재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을 다루는 기관은 국무총리 직속의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으로서, 전자는 주로 청소년

의 보호와 유해환경규제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후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육성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가족학의 미시적 측면인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 분야는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거시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가족정책 분야는 그 담당부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대상자를 기준으로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으로 분산되어 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의 재발을 돕는 사업에 치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정책이나 가족복지정책이 없는 가족정책부재국으로서(유영주, 2001), 가족과 관련된 행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학은 보호관찰분야에 이렇다할 정책결정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건강가족을 강화하고 개별가족들이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의 경우,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이혼예방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주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을 지도할 전문가를 양성하며, 법원은 강제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이혼예방을 위한 가족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하였다(김혜선·박희성, 2000). 현재 한국의 경우 보호관찰제도와 가족정책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과 가족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가족관련 전문가를 보호관찰영역에 배치하고 가족 단위의 세부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IV.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가족학의 과제

현행 보호관찰분야가 좀더 활성화되기 위하여 가족학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다 전문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범예방

에 주력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약물남용 대상자들에게도 강제적인 구속 하에서 약물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 자존감이 저하될 수 있고, 그 반면 상담만 실시하는 경우 역시 충분치 않으므로 약물치료와 교육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성교육, 심성훈련, 가족관계 향상교육, 대화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비행을 저지르는 자녀를 둔 부모 역시 심리적 타격을 받고 부모로서의 무능감에 빠지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기 쉽다. 유종관(1999)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의 부모들이 일반 청소년의 부모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트레스 수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준다. 건강한 가족, 건강한 부모체계가 회복될 때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가능성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호자교육은 비행청소년을 둔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교육으로서, 긍정적 사고훈련, 부모역할교육, 대화교육 등이 필요하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자간의 갈등개선을 다루는 소집단교육이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사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사법부에서 소년전담 판결시 수강명령, 사회봉사, 구속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되는 데, 적합한 판결을 내리는 근거로서 전문상담가가 해당 소년범죄자를 사전에 면접하여 상담을 한 후 소견서를 첨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앞의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호관찰 판결 시 수강명령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이 10배 이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적합한 수강교육을 실시해줄 기관이 부족한 경우 수강명령보다는 사회봉사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가족학분야에서 전문인적자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수강교육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비행청소년 수강교육 시 보호자를 소집하여 보호자교육을 받도

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어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으로 참석률이 저조하고 효과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년대상자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강교육을 부과하도록 사법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 요망된다.

셋째,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범죄예방위원회에 대한 전문화과정을 실시한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면확대 실시에 대비한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유사업무 통폐합, 민간자원 봉사조직의 일원화 등을 목적으로 1996년 6월부터 관련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검찰청 소속의 선도위원, 갯생보호공단의 보호위원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보호선도위원 등의 조직을 범죄예방위원으로 통합하여 검찰청 산하에 두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지역의 유지들로서, 보호관찰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있지만,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여 실제 현장에서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전문화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 예로, 목포대학교에서는 2000년도에 제1기 범죄예방위원 전문화과정을 개설하여 70명이 수료한 바 있다. 그리고 향후 일반 자원봉사자의 자격기준도 상향조정하여 일정기간 청소년 및 가족상담분야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상담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일반 청소년 및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비행청소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학 전공자들이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학교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순화교육을 실시하거나, 마약예방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 등과 같이 전문화된 교육 외에도 결혼준비교육이나 건강가족형성을 위한 일반적인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비행을 예방하는 교육의 효과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관련 중독과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교육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이러한 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은행을 조직하고, 이동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중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실무 등의 내용이 5급~9급 공무원들의 전문교육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소년보호직이나 보호관찰직 등에 속해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경우 상담관련교육의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가족환경의 중요성을 기본으로 하여 가족상담의 이론과 기법들을 배우는 내용이 직무교육에 포함된다면 담당공무원들이 대상자교육을 자체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보호관찰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여섯째, 그룹홈(group homes)을 운영한다.

보호관찰이 종료된 대상자 중에는 학교나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악화되거나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되어야 할 부모가 무력하거나 가정이 해체되어 갈 곳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을 보호해 줄 환경이 제공되지 못한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소년원의 경우, 가족과의 대화단절과 손상된 가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3일간 머무르는 가정관이 전국 소년원에 14개 동이 설치되어 가족합숙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일시적인 거처에 불과하다. 2000년 10월 현재 취업학생 중 무의탁 학생이 32.8%를 점유하는 실정으로, 이들의 취업과 안정된 적응으로 완전한 사회복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로 사회복귀관과 같은 중간처우시설이 필요한 형편이며(정해룡, 2000), 보호관찰 종료대상자들에게도 사후지도 방안의 하나로서 대리부모역할을 하는 상담사가 상주하는 지속적인 그룹 홈을 운영하여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V. 맺는 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관련학문 분야들이 함께 참여하여 실태조사와 교육, 그리고 상담을 실시해왔다. 형식적으로 실시해오던 수강명령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욕구는 해당 공무원들이 절감해온 사항이며,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가족학 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호관찰의 범위가 비행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범의 교화교육까지 확대된 지금,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상자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학문 분야들간의 유기적 협동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서는 약 18개 부서에 이르고(오영재 외, 2001), 행정조직의 비체계성과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능률성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정작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개입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범죄 예방위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상담을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소 내에 부설기관으로서 가족상담센터가 설립되고, 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진행할 전문상담가가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청소년교육과 보호, 그리고 교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관련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결성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학, 교육학, 심리학, 의학 등 기존 분야 외에 가족학이 합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동안 지적되어왔듯이(예를 들면, 정현숙, 2001) 가족학 분야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여 대중의 인식을 높히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한 참여와 민간단체와의 연결망 구축 등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보호관찰,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가족 정책

참 고 문 헌

- 김경미(1988). 자기노출훈련이 비행청소년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1992). 비구조적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품행장애정도에 따른 효과 분석).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1998). 가족치료 학지사.
- 김인상(1999). 보호관찰 예산과 정책. 보호. 통권 10호. 법무부. 145-187.
- 김인호(1992). 비행청소년의 비행유형별 집단상담간 효과 비교.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2000). 비행청소년의 자아성장 프로그램의 효과.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박희성(2000). 이혼예방을 위한 최근 미국 가족정책에 관한 소고.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8차 학술대회 자료집. 가정복지사의 현장활동을 위한 Extension Service Program.
- 남정자(1991).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그 사회·심리적 관련 요인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안녕(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 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검찰청(1999). 범죄분석. 대검찰청.
- 문화관광부(1999).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2000).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 박국향(1991). 현실치료적 접근모형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통제부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유영주(2000).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주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55-174.
- 서동인·정현숙(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제1권. 1-38.
- 심용철·최강현(1986).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연구. 행동과학연구 제8권.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오영재·백경숙·조선화(2001). 뉴밀레니엄 시대의 청소년 복지론. 도서출판 양지.
- 유영주(2001). 가족학의 발전전략.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5.
- 유영주 외(2000). 현대결혼과 가족. 신광출판사.
- 유종관(1999). 비행청소년 부모와 일반 청소년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법무부. 보호. 통권 10호, 62-95.
- 윤달원·김남순(1983).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자아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학생생활연구보 제9집. 경상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이미향(1993). 인지-행동 집단상담의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점수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종(1982).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및 자기개발을 위한 심리상담에 의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화(1992). 자아강화를 위한 심리극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강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2000). 청소년과 가족관계. 법무부 범죄예방목포지역협의회·목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주최 2000 범죄예방위원 전문화과정 교재.
- 이정연·이창숙(2000). 새 밀레니엄 시대에 보호관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포대학교 생활과학논집 제3집, 51-66.
- 이정연(1998a). 긍정적 사고훈련의 개발. 목포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1집, 1-13.
- 이정연(1998b). 약물남용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단기효과.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 복지사회연구 창간호, 207-223.
- 이정연·정혜정(1996). 가정복지와 가족생활교육. 목포대학교 논문집, 17(2), 347-359.
- 임태숙(1991). 분노통제 훈련이 비행청소년의 분노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미·김명자(1996).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47-64.
- 정정숙(1994). 자아성장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불안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효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해룡(2000). *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제 및 발전방향*. 제26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현숙(2001). 가족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7-72.
- 정혜숙(1995). 보호관찰대상 비행소년에 대한 집단 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8a). 비행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IV. 청소년대화의 광장.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8b).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부모개입 프로그램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최창영(1989). 집단상담이 소년원생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1996). *청소년학 개론*. 중앙적성출판사.
-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1997). *가정폭력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학술대회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ernes, G.M.(1984). Adolescent alcohol abuse and other problem behaviors: Their relationships and common parental infl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4).
- Rollins, B.C. & Feldman, H.(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0-27.
- Rollins, B.C., & Galligan, R.(1978). the developing child and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In R.M. Lerner & G.B. Spanier(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http://www.probatation.go.kr>.

(2001. 11. 28 접수)